



브리검의 소식들

BERACAH VALLEY NEWS

1138-2219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본동 314-10 본부: TEL, FAX 423-2826 회장: TEL, FAX 554-2319 www.shinbira.com\Telpa61

제3호
1998

제 15차 국내순회전도를 마치고

김승석 목사

(선교회 회장, 단장/ 서울 충만교회)



우리 주님께서서는 어느 때 보다도 다사다난했던 금년 여름에도 어김없이 열 다섯번 째 국내순회전도를 하게하셨습니다. 여전한 경제난국으로 인하여 지난해 연기되었던 제 13차 해외순회전도(필리핀)를 금년에도 연기 할 수 밖에 없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시고 사용하시는 전도자들을 마치 전쟁터 여기저기를 헤집고 다니면서 부상자들을 찾아다니는 의무병들 처럼 만남을 무릎쓰고 눈물과 땀을 흘려가며 전력을 다하여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점점 악화되어가는 경제사정, 급증하는 실업자문제등 현재의 난국은 전도하는 일에도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전도집회하기가 힘든 교회들이 많았고 군부대도 공비침투수색작전과 수해복구작업 그리고 불교,천주교의 연합에 의한 기독교집회에 대한 조직적인 방해가 증가함에 따라 어느 때 보다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출발하기 전부터 수해소식이 터져나오고 출발하는 날에도 서울에 앞을 분간키 어려울 정도로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그 동안 교회성경학교, 수련회와 선교단 특별훈련등으로 이미 기진하여 있는 단원들을 이끌고 대장정을 시작하였습니다. 마치 양동으로 물을 퍼붓듯 자동차 천장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는 빗소리를 들으며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주실 하나님의 솜씨를 기대했습니다. 일기예보는 경기도 충청도등 중부에 호우경보가 내려졌음을 계속 알리고 있었고 우리가 첫번째 목적지로 하고있는 호남지방은 이미 지리산일대가 침수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도 경험했듯이 영혼구원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일기를 적절하게 조정해 주실 줄 믿고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수원쯤 지나면서부터 호우경보가 내려진 경기도, 충청도의 고속도로는 점점 빗줄기가 약해지더니 충청도에서는 아예 비가 멈췄고 드라이브하기에 너무 좋은 그늘진 날씨에 모든것을 씻어낸 깨끗한 도로를 달리게 되었고 호우경보 때문인지 차량도 드물어 막힘없이 나갔고 전라도에 들어서니 구름마저 걷혀지고 화창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우리 하나님은 전도하기에 적합하도록 일기를 조절해 주셨습니다. 너무 무더운 날은 우리가 이동 할 때에는 화창하게 하셨다가 집회가 시작된 다음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를 퍼부어 시원하게 해주시고 집회가 마치면 깨끗이 그치게하여 기자재를 싣고 이동하기에 아무 어려움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숙소에 도착하면 또 퍼붓곤 했습니다. 그토록 말썽 많던 비는 우리 전도자들을 피해다녔습니다. 울산에서 집회하는 동안 서울, 경기지방에 큰 수해가 났다고 난리였고 우리가 모든 일정을 마치고 상경하는 날에는 중부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차량들이 중부지역을 달리는 동안 간간이 소나기를 뿌릴 뿐 여행하기에 너무 좋은 날씨였고 그동안 계속해서 비가 쏟아지고 있던 서울도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완전히 그쳐버렸고 그 후에도 계속 화창했습니다. 그리고 들으니 이제는 울산지역과 남부에 폭우가 내린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은 지난 1월 겨울순회전도때에도 꼭 같았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는 폭설이 멈추었고 우리가 지나가면 다시 폭설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들의 발길에 맞추어 일기까지 조절하셨습니다.

또한 순회전도를 출발하기 앞서 워낙 신체가 허약하거나 장염, 변비로 고생하던 단원들이 있어 그들을 위해 기도했었습니다. 그러자 순회전도 기간내내 그 말썽인물(?)들은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밝게 한 번의 말썽도 없이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집회를 앞두고 모두가 밤낮으로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셨고 기도한 만큼 이루어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 하나 되돌아보니 우리가 그동안 모여서 기도한 것들이 어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고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한 부분들은 더욱 아름답게, 행통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일예로 우리의 전도집회 프로그램이 찬양, 워십댄싱, 드라마, 메세지, 싱어롱, 기도등인데 어느 프로그램으로 하든지 또한 한 순간도 헛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이 되도

특 기도했는데 각 집회처의 사람들이 써보낸 소감문을 보면 참으로 사람마다 순간순간을 통해 끌고루 큰 은혜를 받았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연습, 훈련시 단장이 어느 부분의 부족함 때문에 단원들을 책망했던 그 부분들도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바쁜 일정 때문에 제대로 아침기도회를 하지 못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한 적이 있었는데 역시 그 날은 영육간에 실수와 범죄들이 여기저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기도가 부족할 때 여지없이 틈탔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쉬지않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르짖어야만 각자 자신을 지탱하고 할 일을 할 수 있음을 거듭 거듭 체험하며 깨달았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발견하는 순간이 또 있었습니다. 순회집회를 출발하기 직전에 경남 사천에 있는 특공부대를 집회하기로 하였으나 갑자기 부대가 작전명령이 내려서 집회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부대집회를 위해 기도했고 단원들에게도 계속 기도하게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 할 역사를 일으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라남도 고흥에 있는 어느 부대에서 전도집회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집회하는 그 날 현장에 가보니 사천의 그 특공부대가 작전중에 바로 이 부대로 이동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부대 대원들을 강당의 좌석과 통로와 앞자리등에 가득히 모아놓고 집회를 하였는데 그 다른 부대가 우리가 집회하려다가 무산되었던 사천의 특공부대라는 것을 집회가 끝난 다음에야 알게되었습니다.

그 날의 집회는 어느때보다도 감동이 넘쳤습니다. 더욱이 집회후에 하사관 한 명이 와서 자기가 하사관 학교에서 갈보리선교단을 만났고 그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하게 되었는데 그 후 갈보리선교단을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여기서 만나서 너무 반갑다고 하며 열심히 대원들을 돕는것을 볼 때 더욱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느 지방 사람들이건, 어느 계층의 사람이건 우리가 가서 외치는 곳마다 한결같이 큰 은혜와 감동을 주시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깨우고 치료하고 변화시켜주셨습니다. 어떤 곳은 너무 분위기와 집회장소가 어수선하고 사탄의 방해가 심했으나 일단 집회가 시작하여 5분, 10분만 지나면 모든 사람이 잠잠해지고, 집중되어지고, 생기가 돌고, 변화되고, 뜨거워지고, 기뻐하는 광경을 어김없이 보게되었습니다. 수없이 집회에 서 보지만 그때마다 새롭게 역사하심이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 즐거움과 감격은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마다 지금 나와 단원들이 때마다 가지게 되는 그 즐거움과 감격은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고 깨달습니다. 온갖 방해와 핍박을 무릎쓰고 눈물과 땀을 흘리며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가는 전도자들, 비록 가장 못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순수한 믿음과 사랑과 전도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참으로 이번 순회전도뿐 아니라 언제든지 동일하게 함께해주시고 역사해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대상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은혜를 내려주셨는지는 별지의 감상문들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재에 금번 순회전도를 통해 여러 교회들과 기관들을 접해보고 알게 된 사실들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점 점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사랑과 열심히 식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설 때 부터 마지막까지 너무나 찬바람이 부는 교회들이 많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도자들부터 사랑과 열정이 심히 냉냉함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신실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예수님의 사랑냄새가 나는 교회는 점 점 보기가 드물어가는 것 같습니다.

둘째, 교회들이 아직도 양적, 외형적 성장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전도는 언제까지나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이제 한국교회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심하게 치료하고 양육하는 일에 전력해야합니다. 이미 너무 늦은감이 듭니다. 교인들의 무기력과 세속화는 너무 일반화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도자들이 황급히 반성하고 서둘러서 해결해야 만 합니다. 이제는 숫자놀음하고 재산놀음할 때가 아닙니다.

셋째, 청소년들 양육이 너무 소홀함입니다. 아직은 그래도 교회마다 수십명 또는 백수십명씩 있는 청소년들의 제자화가 너무 형식적이고 빈약하게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모든 면에서 경험과 성숙도가 떨어지는 교육전도사들이 청소년 양육을 전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험과 인격을 잘 갖춘 훈련된 교관이 아닌 엇그제 들어온 훈련병이 또 다른 훈련병들을 가르칩니다. 이제는 영육간에 잘 훈련되고 성숙한 지도자가 양성되어야하고 그런 지도자들이 우선 청소년들을 맡아야 합니다. 너무도 많은 젊은 자원들이 세상 물결에 휩쓸려가고 있습니다.

그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금번 순회전도를 위해 땀흘리시며 함께 열심히 뛰어주신 박신봉, 정이남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전도자들을 온 정성을 다해 보살펴주신 김명환목사님과 소록도교회 성도님들, 울산태화교회, 이리임상교회, 진주혜성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갈보리선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모든 이사회원 목사님들과 교회들, 후원회원님들, 선교사님들, 모든 기도회원님들께도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신 영광과 특권

박충인
(단원, 울산 태화교회)

이번 순회전도 때 엔지니어의 일과 일반단원으로서의 역할을 반 반씩 담당했던 나는 여러가지의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다. 엔지니어로서 나는 무대 뒤를 지키며 앞에 설 때와는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우선은 목사님의 설교말씀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들을 수 있었다. 거의 비슷한 내용들의 말씀들이었지만 보다 강한 느낌을 받게 되었다. 특히 이번 둘째 주 월요일 집회 때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게 되었다. 비디오를 찍고 있었는데 그때 만큼의 목사님 설교는 어느 때와 다르게 느껴지게 되었다. 엔지니어의 일을 위해서 감정을 억제하며 참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무대 위에 섰을 때, 처음에는 괜찮던 목소리가 점점 쉬어서 이상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잠시 후 어디에서 나오는 목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른 하나의 목소리가 내 안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그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첫번째 집회는 소록도 신성교회에서 하게 되었다. 그 교회는 나환자들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나환자들 뿐 아니라 소록도를 방문한 정상인들이 같이 참석하게 되었다. 나환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떤자들이 주를 찾더라도 사랑으로 만나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하고는 다른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는 해도 정상적인 우리보다도 하나님께 더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에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졌다. 말씀 한 마디 한 마디에 찬양 한 곡 한 곡에 "아멘" 하는 목소리들은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참 사랑을 우리로 느끼게 하였다.

집회가 마친 후에 몇몇 나환자성도님들이 하모니카 연주를 했다. 대부분은 봉사들이었다. 안보이는데도 옆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하는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힘차고 기쁨에 넘쳐 있었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소록도집회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몹시 아쉽게 느껴진다. 정말 다시 한 번 가고싶어지는 집회였다.

그리고 소록도 집회를 마치고 금산으로 향했다. 금산에서는 연합집회를 하게 되었다. 이 때만은 내가 제정신으로 집회에 임하지 못했다.머리가 집회시작 전부터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하게 되었다. 컴퓨터를 만질 때 그리고 마이크 조작을 할 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들을 저지르게 되었다. 나 하나로 인해 집회가 은혜스럽게 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실수를 가려주신 것 같았다. 내가 보았던 성도님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환하게 변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실수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해주셨다.

이렇게 금산연합집회는 지나갔다. 다시 육지로 나와서 고흥부대에서 집회를 했는데 2개의 대대의 연합집회였다. 무더운 가운데에서도 다른 어떤 군부대 보다 집중해서 듣는 것 같

았다. 목사님께서 마쳤다고 나가도 좋다고 했는데도 의외로 그들은 우리의 마지막 기도가 끝나고도 자리를 계속 지키다가 하나 둘씩 나 가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이 군인들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하셨던 것 같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그 주님과 떨어지고 싶지않은 마음이 생겨나서 그런 것 같다. 이번 순회전도 때에는 많은 군부대를 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신 것 같다. 주님의 놀랍고 크신 능력을 느끼게 되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해서 부산에 있는 신망에양로원으로 향했다. 양로원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주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게 될 지 너무나 기대되었다. 집회는 은혜롭게 마쳐졌으나 한 가지,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없었던 것이 아쉬웠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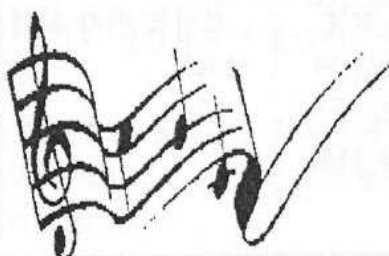
두번째 주간은 교회집회의 연속으로 진행됐다. 특히 대광교회 집회가 생각이 많이 난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신 것 같다. 그 집회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집회도 있었던 반면에 어떤 교회의 집회 때는 성도들이 불쌍하게 여겨졌다. 성도들은 은혜에 빠져있는데 교회 담임목사님은 집회중에도 아무때나 돌아다니고...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졌다. 정말 주님께서 그 목사님을 변화시켜 주셨으면 하고 바랬다.

이렇게 울산집회는 오늘 서현교회를 마지막으로 마치게 된다.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벌써 2주간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가고 마지막집회를 생각하게 된 것이다.

이번 순회전도 때에 보았던 것은 언제나 갈보리선교단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과 주님이 언제나 집회때마다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심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매번 집회때마다 보게되는 것은, 처음에는 성도님들이 우리를 흔히 만나보는 찬양선교단으로 느끼다가 집회를 마치고나면 모든 것이 새롭다며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모습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밝아져있음을 느끼게 된다.

나로서는 순회전도가 이번이 두번째이지만 그 시간들을 통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을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체험하는 갈보리선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내가 너무나 영광스럽고 기쁘기만 하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나를 써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표제명 소개
여호사밧왕이 이방동맹군과 전쟁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대를 일으켜서 찬송하며 나갔다. 하나님은 특별을 보내 적군들기려 지게하여 전멸케 하셨다. 유다군대는 한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는데 그곳이 브라가 골짜기다. (대하20장)
브라가는 '승축'의 뜻.

어린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체험들

원중석 (단원, 서울 충만교회)

제15차 순회전도가 시작되었다. 그동안 힘들고 피곤한 적도 없지 않았다. 주일날 같은 경우는 3번 집회로 인해서 매우 힘들고 지치게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런지 잠을 자고나면 온 몸의 피로가 풀리고 개운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순회전도 때에는 나의 모습에 대해 하나님께서 많은 깨달음을 주셨다. 하나님은 순회전도를 하기 전부터 나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셨다.

절대로 순회전도를 가지말라고 반대하셨던 나의 부모님을 나는 정말 걱정하였다. "집을 그냥 뛰쳐나와야 하나..." 라고 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나에게 믿음과 담대함을 주셨다. 나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저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붙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적을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부모님의 반대는 더욱 심해졌다. 다음날 아침 출발시간이 가까워졌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있었다. 바로 그때 부모님은 나를 부르시더니 갑자기 허락해주시고 용돈까지 주시면서 잘 갔다오라고 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를 드렸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나이다. 내가 무엇이기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주시고 말씀과 신앙이 별로 훌륭하지도 않은데 나를 써주시고, Q.T, 기도, 성경읽기도 제대로 못하는 나인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순회전도의 첫번째 집회는 신성교회였다. 소록도 교회라서 그런지 상당히 사람들의 열정이 뜨거웠다. 나는 나환자들을 처음 보았다. 호기심 반, 무서움 반 인 그런 심정이었는데 막상 나환

자들을 대하여 보니 그들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진정으로 훌륭한 신앙인들이었다. 그들은 진정으로 기도할 줄 알았고 감사할 줄 알았다. 그 무서운 병속에서도 슬피하거나 원망 불평하지않고 하나님을 따라 기뻐하고 찬송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나의 부족함을 깨달았다. 그들을 보며 앞으로 외면적인 것 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진실함과 간절함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소록도를 떠나 울산으로 갔다. 몇몇 교회들은 솔직히 말하자면 대부분 집회준비에도 비협조적이었고 약간 무관심한 면도 보였다. 하지만 집회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다. 집회가 끝나면 그들은 하나같이 감동을 받아 집회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능력을 느낄 수 있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앞에서 울산 성도님들은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나는 이번 순회전도를 통해 내 자신이 좀 더 변화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매일 Q.T하는 자세를 가지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신앙성장을 위해 열심을 가져야 겠다.

또한 순회전도를 마친 후에 마귀의 방해로 떨어져 나간 많은 사람들과 같이 되지않도록 조심해야 겠다. 어떤 마귀의 방해와 유혹과 공격이 와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야겠다. 담대히 싸워 나가겠다. 기도하며 싸우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겠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남는 자, 이기는 자, 견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뜨겁게 만든 드라마

이운주 (대광교회)

너무나 가슴 떨리는 드라마를 한편 보았습니다. 세상 이야기처럼 코믹스럽지도 않고, 그 혼한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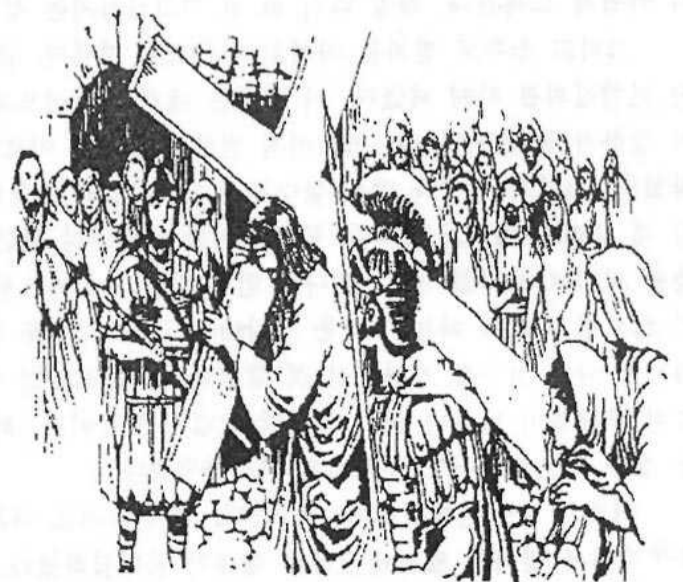
하지만 드라마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단 한 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었으며, 그 어떠한 다른 생각도 할 수 없도록 가슴이 벅차 울랐습니다. 대사 한마디 없이, 나레이터의 낭독만으로 드라마가 전개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대사가 필요 없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단원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표정 하나하나가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조롱속에서, 그 아픈 책쩍질을 감당하시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 아니 내 죄를 위해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기억해야 겠습니다. 매 순간순간 마다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내 죄를 돌아보고 주님께 회개하여야 겠습니다.

그동안 나태해져 있었던 마음을 찬양과 무용, 드라마 등을 통해 다시 한번 가다듬게 해 주신 선교단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박혜진
(울산 태화교회)

갈보리선교회집회를 지난 울산 노회 중고등부연합수련회 때 보았다 하지만 오늘은 또 다른 느낌이다. 마치 천국에서의 천국천사들을 보는 것 같다. 단원들이 더 은혜를 받으며 하는 것 같아 더 큰 은혜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희 안에 있다고 했다. 난 거듭났다고 말만 했지 믿지 못했다. 아니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 요즘 불평불만으로 가득찬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해보게 된다.

예수님의 생애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 피땀흘리며 기도하시는 모습을 발견했다. 예수님께서 날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난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로 부터 사랑받기 바

랐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말이다. 예수님의 피를 헛되게 되지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다짐했다.

목사님의 말씀시간은 나에게 너무 찢리는 것이 많은 시간이었다. 난 요즘 학생신분에 충실히 하지 못했다. 감사함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 해야하는데 요즘은 덩고 짜증나서 해야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았다. 옛날엔 없어서 못했는데 이젠 배가 불러서 너무 게을렀던 것 같다. 힘들어도 기도해가며 더 워도 정신차려가며 학생의 신분을 지켜야겠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외치시던 말씀과 사랑실천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난 사랑을 받기만 했지 사랑을 주지는 못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로 비전을 향해 멋있게 달려나갈 것을 다짐해 본다.

힘내세요! 갈보리선교단 화이팅!

아름다운 전도자들의 모습

김상구 (우정교회 청년회)

갈보리선교단 여러분의 모습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군에서 제대한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제게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가지로 일하고 계신것 같았습니다.

많은 도전이 되었고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박수치면서 함께 한 순간순간이 정말 기뻐했습니다.

찬양과 드라마와 말씀. 주님께서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것을 통해 다시 한 번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내게 있는 모든 질병, 고난 까지도 다 담당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찬양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곳에서 열심히 찬양하며, 사모하며, 전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아들이 되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시고 좁은 천국문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온 편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단원들

홍기록

(육군종합행정학교 학생연대 특기병 1중대 31번 이등병)

다른 선교단의 찬양공연을 대학교 때 CHAPEL시간이나 교회에서 가끔 본 적이 있지만 오늘은 그 때와는 상당히 다른 느낌이었다. 그건 아마도 군에 입대하여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으로 관객석에 앉아있는 특별한 상황 때문인 것 같다. 입대 후 군인이 되어 우리 모두의 믿음은 더욱 절실하고 간절하여 지는 것 같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이 들 때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실하고 감사하게 느껴지는지...

우선 오늘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곳 육군종합행정학교까지 찾아와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육군장병들에게 위안과 힘이 되어준 갈보리선교회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공연의 완성도도 아주 높고 연습도 많이하신 것 같다. 초반부에 찬양과 무용을 하는 갈보리선교회 단원들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워 보였다. 함께 박수치며 찬송을 부르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연출되어 편안하고 느낌이 좋았다.

목사님의 설교가 이어졌는데 항상 반성하고 성경책에 나와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목사님 설교가 가슴 깊이 와닿아 새로운 결심을 하게 만들었다.

뒤이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린 드라마가 시작되었다. 진지하고 열성적인 단원들의 연기는 매우 감명적이었고 음향효과와 적절한 사용과 배경음악의 선곡도 참 좋았던 것 같다. 그리 길지않은 시간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표현하는 단원들의 연기력이 매우 뛰어났던 것 같다. 역시 관중을 참여시키는 분위기는 흥겹고 집중력을 높였다. 특히 예수님이 죄인들의 손에 의해 못박하시는 부분의 연기와 음향효과는 만점이었다.

연극이 끝나고 이어진 목사님의 설교는 많은 것을 깨닫게 해 주었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로 결심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승리자」의 곡으로 끝맺은 공연은 거의 완벽했다.

끝으로 좋은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신 목사님과 갈보리선교회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되고 갈보리 선교활동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말 할 수 없는 기쁨

송 창 원

(제2대대 5중대 상병)

오늘의 공연과 전도집회는 성공적이었다. 내가 지금껏 보았던 다른 집회와는 달리 좀 더 우리에게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짜임새 있는 드라마의 구성은 성경에서 읽었던 구절들을 그대로 형상화하여 이해하기 쉬웠다. 보면 볼수록 흥미롭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왔으며 무엇을 전달하는지 인간의 죄사함을 위해 노력했는지 알 수 있었다.

집회내내 우리도 무더위하며 진땀을 흘리고 있었지만 땀과 눈물로 범벅되었어도 여전히 웃음을 띄며 공연에 열중하는 갈보리 선교단의 모습을 보니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는 내 모습이 부끄러울 정도였다.

중간중간에 목사님의 설교내용은 보다 현실적인 내용이었다. 우리가 흔히 접했었던 사례들을 신앙으로 적용시켜 우리가 잘못했으며 그릇되게 행동했던 일들을 다시 회고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다 주었다. 예를들어 변명만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거나 그 잘못된 결과들을 남에게 지워 자신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만들어 놓는 등 우리 주위에는 흔히 있는 일이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의 잘못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감싸안아주시심을 말씀할 땐 내 가슴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이 넘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연 중간중간에 같이 박수를 치며 서로가 보이지 않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모두가 하나라는 느낌을 갖도록 한 것도 보다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했으며 나도 저 일원인 것 같은 생각을 하게되어 끝나갈 때 쯤에는 많은 아쉬움이 남았다. 이제 여기를 떠나 또 다른 곳을 다니며 전도에 몸을 아끼지 않을 갈보리선교단에게 아쉬움과 섭섭함이 있지만 그들이 성취하려는 일들이 잘 이뤄지고 그 곁에 항상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디든지 성공적인 공연들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내 가슴속 한 구석에 자리잡게 되었다.

어두움을 밝게 하는 선교단

김 상 현

(전남고흥부대 본부중대 이병)

먼저 이 먼 곳에까지 오신 갈보리선교단에 감사한다. 사회에서가 아닌 군대에서 이런 은혜로운 행사를 봤다는 것에 더 의미가 있다.

그 중 드라마를 보면서 나의 해이해져만 가는 신앙을 다시 한 번 되돌아 보는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재충전이 되었어요

정 동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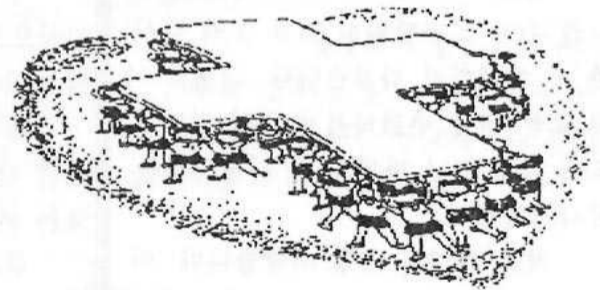
(15사단 신병교육대 2중대 조교 상병)

우선 신병교육대에 오셔서 위문공연을 해 주신 갈보리선교회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목사님의 설교중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하신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내 자신이 기독교인이면서도 주님이 정하신 율법과 말씀에는 소홀히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것에 소홀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연극의 형태로 보게되니 훨씬 가슴에 깊이 스며들었으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이유를 더욱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요즘 영적으로 힘든 시기였는데 이 기회로 신앙이 재충전된 느낌이 듭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조금이라도 더 노력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되었고 또 이 집회를 15사단내의 모든 병사들이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구원자되신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장면이 기억에 많이 남고 은혜가 많이 되었다.

점 점 삭막해져만 가는 우리 사회를 볼 때 갈보리선교단과 같은 좋은 단체가 있으므로 어둠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다시 한번 느끼고 감사한다.

모든 이들의 작은 신앙에 더욱 더 확신을 주는 행사였다.

진심으로 갈보리선교단께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불길로 지폿어요



홍성국 (5사단 신교대 제3중대3소대 153번)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선교단은 말만 들었을 뿐 아직까지 한번도 실제로 접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부끄러운 일이지만 사회에서 그다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단이 확실히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따라서 신병훈련소에서 만난 갈보리선교단이 저의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시작될 때 어둠속에서 점 점 밝은 빛속에 하얀옷을 입은 여성 선교단원은 마치 어둠을 밝게 비추는 천사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찬양과 그에따른 힘찬 율동... 무언가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 저는 선교단이라해서 그저 음악에 맞춰 노래정도 부르는 걸로 알았는데 찬양과 율동을 함께하니 정말 새로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힘찬 시작은 자칫 피로해서 줄수있는 우리 훈련생들의 영혼을 성령의 불길로 지폿습니다. 5명의 여성으로 시작하여 잠시 후에는 남성들이 참여하고 함께 화합하여 찬송하고 춤을 추니 찬양이 힘차게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자신의 신체로 춤을 추는 것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갈보리선교단은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의 설교말씀도 나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습니다. 내 자신이 남을 용서하고 나의 잘못을 쉽게 인정할 적이 있었나... 솔직히 그러했던 기억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시고 자신의 생명도 버리셨는데 주님의 보혈로 다시 태어난 우리들은 정말 올바른 삶을 살았나... 이 세상을 바르게 사는 방법은 목사님의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대로 지켜행하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성경속에 내가 가야할 길이 모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비록 구체적인 어떠한 대화가 오고 가지는 않았지만 귀로 들리는 음악과 눈 앞의 선교단원들의 움직임은 말보다도 더 정확히 표현하였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의 세례요한, 그리고 오신 예수님, 갈보리선교단은 예수님께서 오심과 병들고 무거운 짐진자들을 깨끗케하시고 구원하시는 성경말씀을 눈 앞에서 감동적으로 그려내었습니다. 갈보리선교단의 예수님의 행적을 나타내는 드라마를 보니 진정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듯 하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은 정말 절로 흥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뇌... 자신이 곧 죽어야됨을 안 후 아버지께 부디 그 잔을 나에게서 옮기어 주시옵소서 하며 겟세마네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며 그의 고뇌가 얼마나 심했는지 조금은 알 수 있을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후에 예수님께서서는 해골의 언덕이라는 골고다 언덕길을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병사들에게 조롱을 당하며 못박히심을 볼 때 마음속에서 울분이 솟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곧 부활의 춤을 보고 흥겹게 박수를 치며 주님의 영광을 마음속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갈보리선교단의 공연은 백 번을 듣는것보다 더욱 마음에 닿았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일반예배나 다름없으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갈보리선교단의 집회를 보니 정말 다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부르는 찬양과 화려한 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진정한 방법임을 알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선교활동을 통해 마음 속에 짐을 진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알릴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갈보리선교단이 부디 열심히 하셔서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길 바랍니다.

갈보리선교단에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길...

내가 본 갈보리선교단 집회



박정규(대광교회 청년회)

요즘 많은 찬양집회가 있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음은 온전한 기쁨으로 찬양하는 자,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얼마나 될까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인도자를 따르기만 하거나, 관람을 하는 자, 표정없이 자리만 채우고 있거나, 혹 자신의 흥에겨워 찬양을 하지는 않았는지...

갈보리의 찬양은 조용한 가운데 작은 몸짓의 노래로 시작되었고 중간 중간 목사님의 멘트는 우리의 심령을 차츰 열어 주었다. 크고 화려한 연출보다는 소박하지만 진실된 찬양하는 모습에, 어느새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특히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드라마는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 예수가 누구신지를 너무 잘 표현해주었고, 성도들의 가슴엔 다시한번 뜨거운 성령님의 불씨를 일으켜 주었다.

어느 선교단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에 신선한 느낌을 받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노력하고 정성을 드리는 그 모습들에 스스로 많은 도전을 받을 수 있었다. 찬양집회에 대한 부정적이었던 시각을 가졌던 자신이 부끄러웠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언제나 계시는 그분을 체험할 수 있었던 크나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었다.

언제나 이 갈보리선교단의 앞길에 하나님의 계획과 도우심이 항상 함께하시어 많은 이에게 예수의 사랑을 회복시키길 조용히 두손모아 기도합니다.

내 모습을 보았어요

홍 순 회 (울산남교회)



글 주변이 없어서 느낀점을 다 표현할 수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가슴이 벅차고 또 뜨거웠습니다. 찬양과 울동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과 감사함이 제 속에도 넘쳤고 그리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제 모습을 보게되었습니다. 저의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으며 그래도 불쌍히 여기사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갈보리선교회를 만나게 되어 참 기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제 두아이를 데려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까웠고 속상했습니다. 언제나 갈보리선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 드리겠습니다.



감동의 눈물, 가슴 속의 필름

김수미 (우정교회)

이 시간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무슨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까요? 너무나 생활속에서 둔한(?) 믿음생활과 마음상태를 한 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이야 말로 아름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년의 무한한 비전과 젊음을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오직 주님만 섬기며 찬양하는 모습이 아주 정열적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저에게 도전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저의 부족함이 없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감동의 눈물이 흐르고 가슴에 많은 필름을 느꼈습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이 아주 강렬하게 느껴졌습니다. 너무나 준비하지 못했던 또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저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 번 다지고 성경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우리의 돌파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선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열심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시는 음성이었어요

장 복 회 (대흥교회)

천군천사의 찬양인 듯 하나님의 기록하심을 선포하며 시작된 예배. 온전히 기뻐하는 선교단원들의 모습이 마음에 감동되었다.

끝이여 굳더더기 없이 단호하게 선포된 복음이 너무나 좋았다. 구원받은 백성은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해야한다는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었다. 지난 주일 주일학교예배에서 내가 설교했던 말씀도 같은 본문의 말씀이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면서도 나는 이번 주간 내 내 상황은 최악이며 이제 더 참을 수 없다며 원망하며 불평했었다.

이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있는 나를 주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말씀을 주셨다. "난 내 독생자 아들을 죽이기까지 널 사랑한다. 너는 기뻐하라" 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많이 부끄러웠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대 가까이 앉아있었기에 곱게 단장한 자매들의 얼굴에 흐르는 물줄기를 볼 수 있었다. 땀과 눈물이 그것이었다. 기쁨과 확신에 찬 단원들의 몸짓에서, 예수님의 일생을 그린 드라마에서 보여진 저들의 드러짐이 부럽기까지 했다. 저들과 똑같은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에게 허락하신 이곳에서, 맡겨주신 아이들을 사랑하며 감당하기에 땀과 눈물을 아끼지 않으려다.

구원의 벅찬 감격과 주님의 날 사랑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기를 기도 드린다.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오직 예수그리스도만을 전하며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갈보리선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

선교회장: 김승석 서기: 주정림 회계: 윤정화 부회계: 박지민 감사: 김진분

이사 회: 이사장: 박신봉 회계: 김진분

실행이사: 박신봉, 김승석, 정이남, 김중남, 우종하, 오성환, 김승서

운영이사: 박명인, 김병환, 전태근, 송부근

실행위원회: 위원장: 김승석

감 사: 김철우(자랑, 컴퓨터, 홍보), 박지연(행정), 김원철(기자재),

백주현(워킹댄싱, 의상), 장항석(엔지니어)

후원회

김중배의 여러분들

프라가의 소년들을 만드는 사람들

발행인: 김승석

편집인: 김철우

편집위원: 박지연, 백주현, 윤정화

발행/인쇄: 갈보리선교회홍보위원회

온라인 번호-받는다: 김승석

- ▶ 국민은행 826-21-0022-437
- ▶ 서울은행 27907-0388017
- ▶ 신한은행 146-00-237723
- ▶ 한일은행 136-163174-12-001
- ▶ 제일은행 204-20-238677
- ▶ 외환은행 100-10-14709-1
- ▶ 교협 017-12-077394
- ▶ 새신부 013656-0025660